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엔텔스(069410)

소프트웨어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병찬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1.02.04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텔스(069410)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를 실현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기업정보(2021/11/12 기준)

| | |
|------|-------------------------------------|
| 대표자 | 최영래 |
| 설립일자 | 2000년 07월 19일 |
| 상장일자 | 2007년 06월 20일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 업종분류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주요제품 | 통합운영지원 솔루션, 비즈니스 지원 솔루션, 서비스 제공 플랫폼 |

시세정보(2021/11/12 기준)

| | |
|---------|-------------|
| 현재가 | 9,690원 |
| 액면가 | 500원 |
| 시가총액 | 992억 원 |
| 발행주식수 | 10,244,824주 |
| 52주 최고가 | 18,200원 |
| 52주 최저가 | 5,578원 |
| 외국인지분율 | 5.10% |
| 주요주주 | |
| 에치에프알 | 19.63% |
| SK텔레콤 | 6.01% |
| 자사주 | 2.04% |

■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주요고객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솔루션 제공

엔텔스(이하 동사)는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를 실현하는 비전 아래 IoT,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기술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SKT, KT, LGU+ 등 국내외 주요 통신사업자와 통신장비 제조사, 융합서비스 사업자를 주요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G 이동통신에 필요한 스마트 트래픽 관리 솔루션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빅데이터(Big Data)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ICT 융합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을 개척 중이다.

■ 타 산업과의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국내 성장이 예상되는 5G 시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5G 가입자는 4,408만 명에 달하여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기준, 5G 가입자는 925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7,021만 명의 13%를 차지했으나, 5G 기술 성숙 효과와 5G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처리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5G 가입자 확산세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MEC(Mobile Edge Computing)를 신성장동력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대

동사는 5G에서 MEC의 급격한 수요 증가 및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ETSI MEC Reference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MEC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또한, 동사는 MEC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8월 에치에프알, SKT와 5G MEC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해당 사업은 5G 전용망을 운영하거나 도입 예정인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5G MEC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사업으로 동사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5G MEC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계·구축하고 향후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 구분 년 | 매출액 (억 원) | 증감 (%) | 영업이익 (억 원) | 이익률 (%) | 순이익 (억 원) | 이익률 (%) | ROE (%) | ROA (%) | 부채비율 (%) | EPS (원) | BPS (원) | PER (배) | PBR (배) |
|---------|--------------|-----------|---------------|------------|--------------|------------|------------|------------|-------------|------------|------------|------------|------------|
| 2018 | 623.1 | 32.8 | 16.9 | 2.7 | 23.4 | 3.7 | 5.9 | 4.2 | 38.0 | 228 | 4,017 | 30.7 | 1.7 |
| 2019 | 602.3 | -3.3 | 27.8 | 4.6 | 20.3 | 3.4 | 4.9 | 3.3 | 56.3 | 198 | 4,179 | 31.8 | 1.5 |
| 2020 | 566.9 | -5.9 | 42.7 | 7.5 | 73.7 | 13.0 | 16.2 | 11.7 | 23.3 | 719 | 4,890 | 8.4 | 1.2 |

기업경쟁력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력

- 5G 네트워크 및 IoT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특허 등록
- 공신력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상실적 보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서비스 핵심기술 보유

- LTE에서부터 누적된 기술력과 국내외 통신사들의 협업을 통한 5G 핵심기술 확보
- 네트워크 슬라이싱, 스마트 트래픽 매니지먼트 등 5G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보유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통신, IoT 통합 운영지원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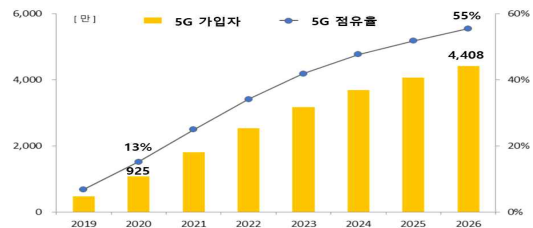
- 통신, 방송, 인터넷, IoT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운영지원 솔루션 개발
- 4G/5G 서비스 가입 및 개통, 고객관리, 상품관리, 정산 및 과금 관련 솔루션을 주력으로 판매

| 사업분야 | 주요 솔루션 |
|-------------|---|
| 운영지원 시스템 | 비즈니스 영역과 서비스 플랫폼 영역 중간에 위치한 서비스 개통, 과금수집, 분석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 |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 서비스 비즈니스의 핵심정보인 고객정보, 상품정보를 관리하는 솔루션 및 시스템 |
| 서비스 제공 플랫폼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 사용자 인증 솔루션 및 서비스 시스템 |

시장경쟁력

5G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2026년 5G 가입자는 4,408만 명에 달하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5G 데이터 트래픽은 2026년 월 평균 최소 1.6EB(엑사 바이트, 1EB=10억GB)에서 최대 2.9EB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20년 | 2026년 | 비고 |
|-------|-----------|----------|
| 0.2EB | 1.6~2.9EB | 8~15배 상승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 소비가 가능하게 함.
- 동사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 분산 방향을 수립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적용된 바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우수한 기술 기반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함.
- 동사는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환경 위험요소의 모니터링, 위험 및 통제구역 제한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산업안전 관리 솔루션을 개발함.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동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1인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환원을 위해 2021년 보통주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함.

I. 기업현황

ICT 융합시대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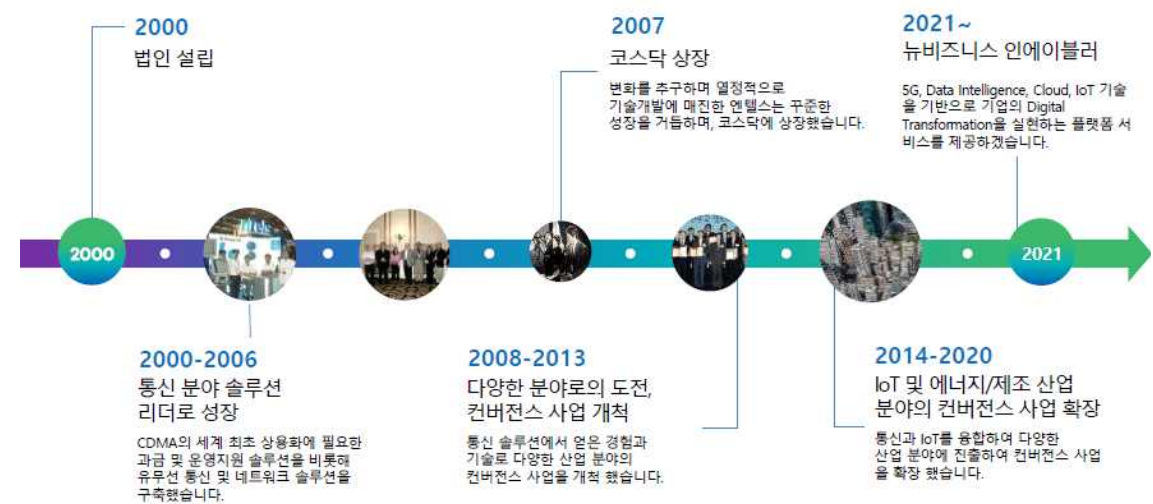
동사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운영지원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통신사가 필요로 하는 최적화된 솔루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ICT 융합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개척 중이다.

■ 기업 개요

동사는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및 IoT(Internet of Things)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통합운영지원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2000년 7월 설립되어 2007년 6월 코스닥 상장하였다.

동사는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를 실현하는 비전 아래 IoT,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SKT, KT, LGU+ 등 국내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와 통신장비 제조사, 융합서비스 사업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동사는 5G 네트워크 및 IoT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특허 등록과 공신력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상실적을 토대로 기술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HP, Cisco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5G 이동통신에 필요한 스마트 트래픽 관리 솔루션과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를 위한 MEC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ICT 융합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개척을 진행 중이다.

[그림 1] 동사의 사업 연혁



*출처: 동사 제공자료

■ 주요 주주 및 관련 기업

동사 반기보고서(2021.06)에 의하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에치에프알로 총 19.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SK텔레콤(주)이 6.01%의 동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지분율은 2.04%이다.

[표 1] 동사 주요 주주

| 주주명 | 보통주(주) | 지분율(%) | 비고 |
|----------|-----------|--------|-----|
| (주)에치에프알 | 2,010,669 | 19.63 | |
| SK텔레콤(주) | 615,600 | 6.01 | |
| 자기주식 | 208,910 | 2.04 | 자사주 |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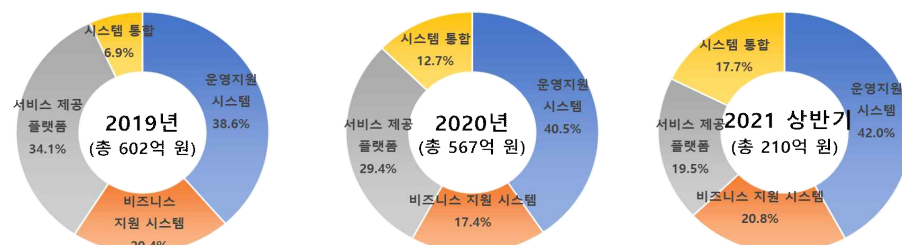
한편, 동사는 종속기업으로 주식회사 엔컴즈를 두고 있다. 엔컴즈는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며, 지분은 100% 모두 동사가 보유하고 있다. 엔컴즈는 2021년 상반기 기준, 17.6억 원의 자산총액과 10.9억 원의 부채총액, 37.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 사업 분야

동사는 통신, 방송,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비스 가입, 고객관리, 상품관리, 과금 및 정산에 대한 통합운영지원 솔루션(B/OSS: Business & Operation Supporting System) 개발과 공급사업을 영위한다. 통합운영지원 솔루션 사업은 크게 운영지원 시스템과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서비스 제공 플랫폼, 시스템통합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2021년 상반기 기준, 각각 42.0%, 20.8%, 19.5%, 1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고르고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 중이다.

운영지원 시스템 부문은 서비스 개통이나 과금, 수집, 분석 관련 솔루션으로 IMS CGF, N-PCRf와 같은 제품이 있다.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분야는 서비스 비즈니스의 핵심인 고객관리, 상품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N-Rater와 같은 제품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 플랫폼 분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 솔루션이나 인증 솔루션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통합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으로서 설계, 유지보수와 같은 무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림 2] 동사 사업 분야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 전체 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R&D 인력과 54개의 사업 관련 특허권 보유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2000년부터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동사의 연구소는 Policy 개발팀, Business 개발팀, Policy 운영팀, 5G Core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대용량/실시간 운용지원시스템, 5G, IT 융합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동사는 전 직원의 약 80% 정도가 R&D 인력인 만큼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핵심 연구인력의 대부분은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관련 기업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사는 2020년까지 연구비로 전체 매출의 약 3% 내외를 지출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5G 네트워크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자 전체 매출액의 5.4%를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하였다.

| 과목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
| 매출액 | 60,229 | 56,691 | 20,997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2,162 | 1,405 | 1,129 |
| 연구개발 투자비율 | 3.6% | 2.5% | 5.4%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동사는 2021년에도 사업과 관련한 특허권을 등록하여 총 54개의 사업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매년 1건 이상의 특허권을 등록하여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oT와 관련한 ‘oneM2M IoT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제어방법 및 제어장치’를 특허 등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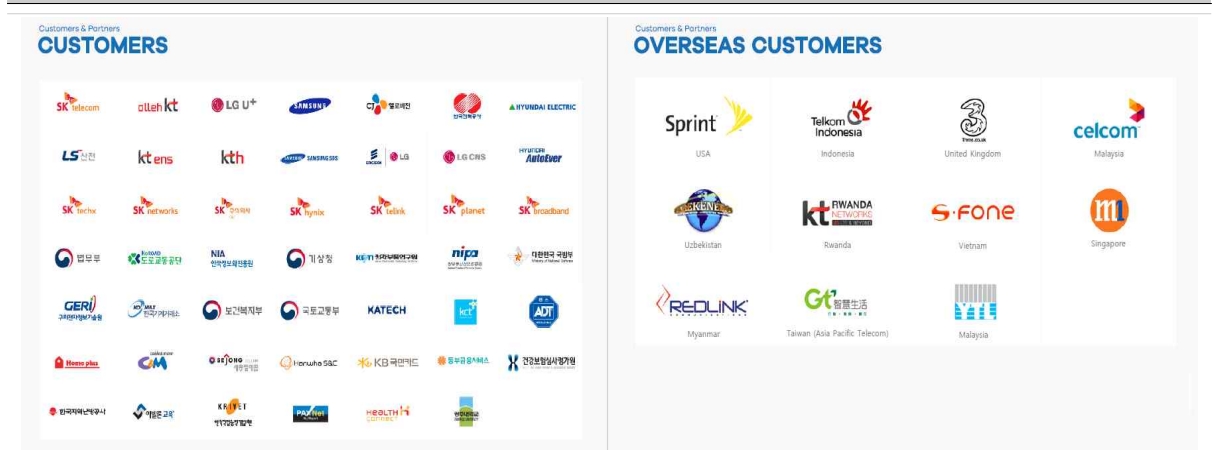
| 구분 | 특허명 | 등록일 |
|--------|--|------------|
| IoT | oneM2M IoT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제어방법 및 제어장치 | 2021.03.26 |
| 과금 | DNS의 호스트 네임을 기준으로 서비스별 과금을 수행하는 방법 및 패킷 분석장치 | 2020.05.08 |
| IoT | DB 장애를 대비한 적응적 IoT 서비스 제공 방법 및 IoT 플랫폼 장치 | 2020.04.29 |
| IoT | IoT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용 UI 제공 방법 및 IoT 플랫폼 장치 | 2020.01.22 |
| 데이터 분석 |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병 진단 방법 및 진단 시스템 | 2019.11.15 |
| IoT | IoT 서비스를 위한 트래픽 제어방법 및 트래픽 제어 서버 | 2019.03.14 |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주요고객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솔루션 판매

동사는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국내 영업조직과 해외판매를 담당하는 해외사업 조직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영업조직은 동사의 전문영역과 5G 기술 및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SKT,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통신장비 제조사, 융합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조직은 미국과 아시아에서 확보한 비즈니스 기반을 통해 영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한다.

[그림 3] 동사의 국내외 주요고객



*출처: 동사 제공자료

동사는 [그림 3]과 같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5G와 LTE를 위한 스마트 네트워크 솔루션과 IoT 서비스 플랫폼, CRM&Billing 솔루션을 판매한다.

스마트 네트워크 솔루션은 모바일 서비스 차별화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유·무선 트래픽 분석 솔루션으로 세부적으로는 5G-Enabled 가입자 관리 솔루션, IoT Connectivity 솔루션, Network Visibility 솔루션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QoS 보장과 과금 제어, 네트워크 환경 최적화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End-to-End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 특히, Network Visibility 솔루션은 가상화를 이용한 기술로 가상화 및 물리 환경에서의 지능적인 네트워크 운용과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IoT 서비스 플랫폼은 비즈니스와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IoT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IoT 비즈니스 지원 솔루션, 스마트 시티 솔루션, 통합 빌딩 관리 솔루션 등이 있다. 동사의 IoT 플랫폼은 Thing, Data, Service 단위로 모듈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필요에 따라 개별적 선택이 가능한 구조라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또한, 디바이스 연결을 위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Language) 활용을 통해 IoT 서비스 개시와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용이하다.

CRM&Billing 솔루션은 사업자가 손쉬운 고객관리와 청구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과금 관리, 사업자 수익관리, 맞춤형 빌링 솔루션

등이 해당되며, 각각 과금 데이터를 수집, 검증하는 기능과 고객이 이용한 서비스 관리, 맞춤형 수용 서비스 기능이 있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객관리의 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4] 동사의 주요 판매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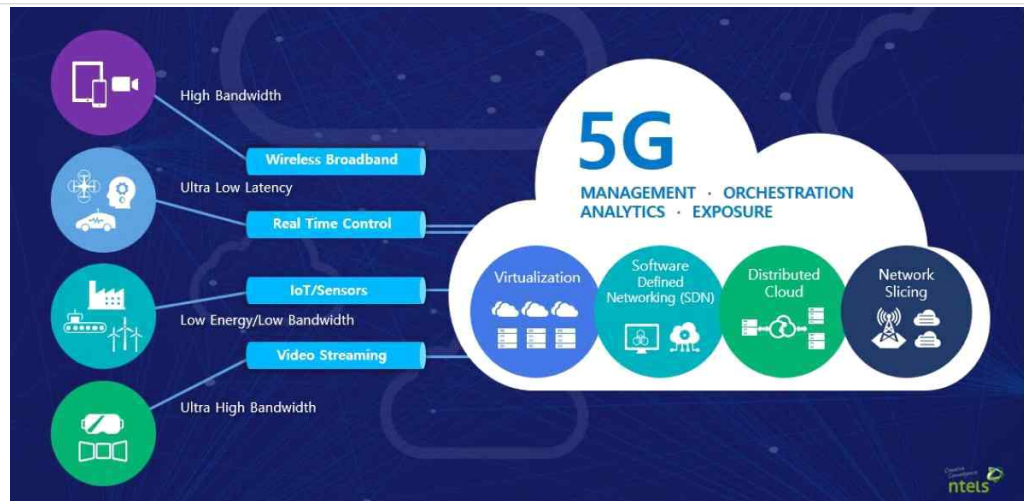


*출처: 동사 제공자료

■ 네트워크 슬라이싱, 스마트 매니지먼트 등 5G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

5G 네트워크는 최대 20Gbps의 전송속도와 1ms 이내의 데이터 지연(Latency), 100만 대 이상의 디바이스 연결 등 모든 면에서 4G 네트워크보다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5G 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같은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SDN(Software Define Network,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방형 네트워크),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이 핵심기술로 소개되었는데, 동사는 LTE에서부터 누적된 기술력과 국내외 통신사들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5G 핵심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SDN, NFV뿐 아니라 네트워크 슬라이싱,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트래픽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5G 서비스 지원 기술들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들은 모두 글로벌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제품에 적용되며, 5G를 포함한 미래 네트워크 관련 기술로 제시되고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표준과 IoT 국제 표준도 준수하여 적용한다. 또한, 동사는 5G 네트워크에서 IoT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맞춤형 기술 PCC(Policy and Charging Control, 서비스/과금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와 네트워크 슬라이스 단위의 관리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도 개발하여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림 5] 동사의 5G 서비스를 위한 핵심 보유기술



*출처: 동사 제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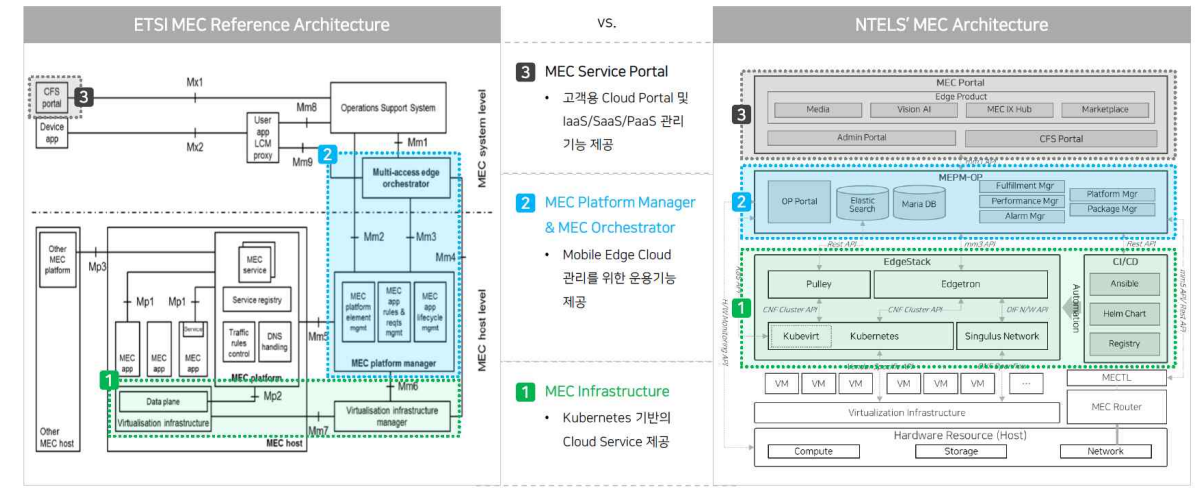
■ ETSI MEC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동사의 MEC

MEC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가장 가까운 부근(Edge)에 컴퓨팅 장치를 두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컴퓨팅 기술을 말한다. MEC는 서비스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을 내포하여 실시간 서비스인 5G, 스마트 팩토리 등에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유럽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에서 주도적으로 Framework, API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동사는 5G에서 MEC의 급격한 수요 증가 및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ETSI MEC Reference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MEC 아키텍처 초안을 설계하였다. 동사의 MEC는 5G 코어망 내 대량의 데이터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대응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ETSI 표준 API 형태로 제공하게 되어있다. 또한, 동사의 MEC는 Watch 기능을 통해 상태 감시가 가능하고, MEC 관리를 위한 운영기능을 지원한다.

최근, 동사는 MEC와 관련하여 에치에프알, SKT와 5G MEC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2021년 8월). 해당 사업은 5G 전용망을 운영하거나 도입 예정인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5G MEC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사업이 목적이며, 고객에게 최적화된 5G MEC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계·구축하고 향후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회성 기술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경험이 없는 기업이 손쉽게 5G 전용망과 5G MEC 서비스를 한꺼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포함되며, 동사는 5G MEC 플랫폼 개발, 서비스 유지보수 및 고객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림 6] ETSI MEC 모델을 기반으로 한 동사의 MEC 아키텍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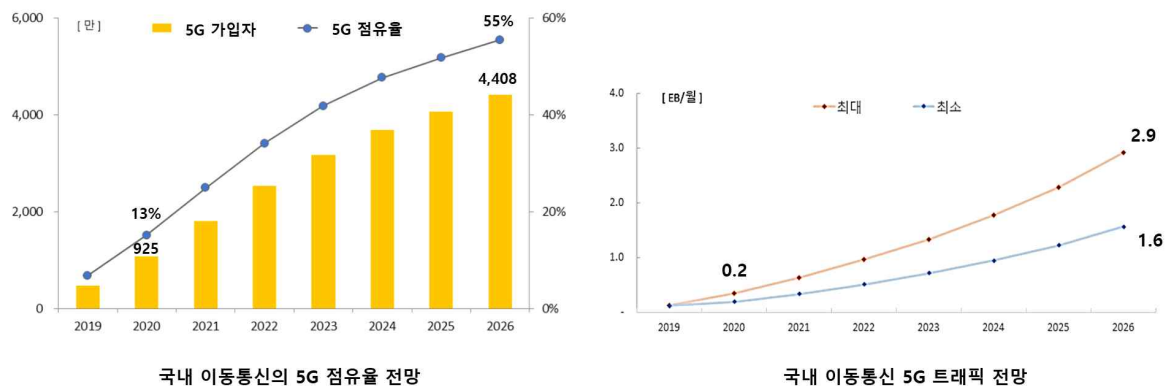
*출처: 동사 제공자료

■ 국내 5G는 타 산업과의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높은 성장세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에 따르면, 2026년 5G 가입자는 4,408만 명을 달하여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기준, 5G 가입자는 925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7,021만 명의 13%를 차지했으나, 5G 기술 성숙 효과와 5G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처리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가입자 확산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2026년 5G 데이터 트래픽은 월 평균 최소 1.6EB(엑사 바이트, 1EB=10억GB)에서 최대 2.9EB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9월 기준 5G 월 평균 트래픽은 221PB(페타 바이트, 1PB=100만GB)로 전체 이동통신 트래픽(647PB)의 34% 수준이었으나, 모바일 게임과 UHD급 고화질 동영상 및 방송, 확장현실 등 초실감형 콘텐츠 비중 증가로 2026년 5G 모바일 트래픽은 2020년 대비 약 8~1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국내 5G 가입자 수 및 모바일 트래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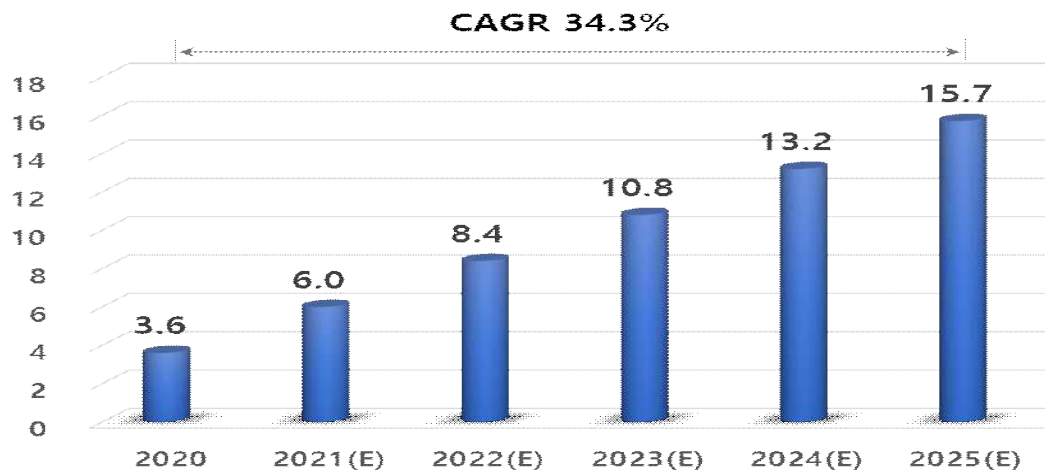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차세대 통신 서비스의 핵심으로 부상중인 MEC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표적인 IT 플랫폼을 해오던 상황에서 MEC가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Marketandmarkets에 의하면, MEC 시장은 2020년 전 세계 36억 달러에서 2025년 157억 달러로 34.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산하고 있는 IoT와 실시간 처리 솔루션 등을 통한 자동 의사결정 증가 및 방대한 양의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필요성 때문이고, MEC의 장점과 특징이 시장을 견인하는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MEC 서비스 대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원격 모니터링, 원격의료, 가상현실, 자율주행 드론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MEC 솔루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량 Framework와 시스템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ME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20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인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조성을 넘어 본격적인 성과를 위해 2025년까지 총 49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D·N·A 생태계 성과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부문에 이동통신 3사는 3년간 총 25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5G MEC 융합 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한다고 하여 MEC 솔루션에 대한 관심은 정부와 통신사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8] 글로벌 MEC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출처: MarketandMarket(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분석

[유엔젤] 유엔젤은 국내외 유무선 통신사업자 등에게 통신서비스 솔루션, IoT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 1999년 7월 설립되어 2003년 7월 코스피에 상장하였다. 유엔젤은 ICT 기술 기반 유아교육 콘텐츠와 솔루션 사업을 자사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 전문 서비스업체이기도 하며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과제 수행 및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가상화와

서비스 기반 구조, 신규 이동통신 프로토콜이며, 가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화 파트너십 프로그램(VMware, HP)에 참여하여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검증 단계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루온] 이루온은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1998년 4월 설립되어 2003년 1월 코스닥 상장하였다. 이루온은 특히 유무선 통신 분야를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실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KT와 LGU+ 등에 주요 솔루션 및 시스템을 납품하였고, 이동통신 솔루션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금융 및 방송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 중이다. 또한, 국내 사업에서 축적한 다년간의 노하우와 기술을 해외 현지 법인에 이전하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 중이다.

[표 4] 경쟁사 매출동향

(단위: 억 원)

| 년도 | 구분 | 엔텔스(동사) | 유엔젤 | 이루온 |
|-------|-----|---------|-----|-----|
| 2020년 | 매출액 | 567 | 271 | 478 |
| | 순이익 | 74 | -12 | 21 |
| 2019년 | 매출액 | 602 | 266 | 494 |
| | 순이익 | 20 | -51 | 5 |
| 2018년 | 매출액 | 623 | 335 | 483 |
| | 순이익 | 23 | 18 | 9 |

동사의 SWOT 분석

[그림 9]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통신 서비스부터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운영지원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통합 운영지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최적의 에너지 경영 방향을 수립하는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동사의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태양광 발전소와 다수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적용된 바 있다.

동사는 선도벤처기업으로서 국내 스타트업의 육성을 돕고 있다. 동사는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우수한 기술 기반 창업팀을 발굴하여 동사의 성장 노하우를 전수하고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법인형 엔젤 운용사로 선정되어 전문가를 영입하고 스타트업 투자 활동을 이어가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있다.

동사는 제조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동사의 산업안전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화재나 긴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피가 가능하게 하고, 공간 정보를 관리하여 위험 및 통제구역 접근 시 경고를 발생시킨다. 또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 감지 시 알람을 발생시키는 등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직무교육과 사내외 교육을 지원하여 임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하는 nDay를 운영하며 건강검진, 휴양시설, 각종 경조사 휴가 및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사 반기보고서(2021.06)에 의하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16.5%로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J, 정보통신업)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30.4% 이하이다. 하지만,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84.2%로 산업 평균인 72.8%에 상회하며,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82.9%로 산업 평균인 67.5% 이상이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동사는 일정 수준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 성별 | 직원 수 | | 평균근속연수 | | 1인당 연평균 급여액 | |
|----|------|---------|--------|------|-------------|--------|
| | 동사 | 동 산업 | 동사 | 동 산업 | 동사 | 동 산업 |
| 남 | 198 | 331,629 | 7.6 | 7.7 | 63,060 | 59,616 |
| 여 | 39 | 144,558 | 6.3 | 5.2 | 53,076 | 43,416 |
| 합계 | 237 | 476,187 | - | - |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0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G) 부문에서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따르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동사 반기보고서(2021.06)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이사회가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다. 동사는 주주의결권 행사제도로 서면 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환원 정책으로 2021년 보통주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한 바 있다.

[표 6]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 이사회 | | 감사 | | 주주 | |
|--------------|-------|---------|---|----------|-------|
|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 | 회계 전문성 | - | 최대주주 지분율 | 19.63 |
| 사내/사외 | 3/1 | 특수관계인 | ○ | 소액주주 지분율 | 66.74 |
| 사외이사 재직기간 | 6년 미만 | 내부통제 제도 | ○ | 3년 이내 배당 | - |
| 내부위원회 | - | 감사 지원조직 | - | 의결권 지원제도 | ○ |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증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방산업군의 투자위축으로 매출 하락이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2020년 당기순이익은 상승으로 기록되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영업실적 반등을 위한 매출처 다변화 시도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 산업 간 IT 융합 추세를 고려하여 매출처 다변화 시도

동사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운용지원시스템 개발과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SKT, KT, LGU+ 등 국내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통신장비 제조사, 융합서비스 사업자 등이 주요 판매처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인터넷서비스, IoT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서비스 가입, 개통, 고객관리, 상품관리, 과금/정산 관리 등과 관련된 통합운영지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종속회사(엔컴즈) 매출을 제외한 개별매출액 기준 2020년 매출 유형은 제품매출 87.3%, 기타매출 12.7%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매출의 품목별 비중은 운영지원 시스템이 40.5%, 서비스제공플랫폼이 29.4%,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17.4%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간 수출 비중은 2018년 8.8%, 2019년 5.5%, 2020년 6.4%를 기록하며 10.0% 미만의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7]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 항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
| 매출액 | 623.1 | 602.3 | 566.9 | 237.0 | 210.0 |
| 매출액증가율(%) | 32.8 | -3.3 | -5.9 | 6.8 | -11.4 |
| 영업이익 | 16.9 | 27.8 | 42.7 | 2.1 | -24.3 |
| 영업이익률(%) | 2.7 | 4.6 | 7.5 | 0.9 | -11.6 |
| 순이익 | 23.4 | 20.3 | 73.7 | 41.7 | -3.2 |
| 순이익률(%) | 3.7 | 3.4 | 13.0 | 17.6 | -1.5 |
| 부채총계 | 154.4 | 237.3 | 114.4 | 96.6 | 104.2 |
| 자본총계 | 406.8 | 421.5 | 490.8 | 459.6 | 487.6 |
| 총자산 | 561.2 | 658.8 | 605.2 | 556.3 | 591.8 |
| 유동비율(%) | 197.5 | 179.0 | 414.0 | 432.3 | 436.0 |
| 부채비율(%) | 38.0 | 56.3 | 23.3 | 21.0 | 21.4 |
| 자기자본비율(%) | 72.5 | 64.0 | 81.1 | 82.6 | 82.4 |
| 영업현금흐름 | -9.7 | 3.4 | -57.9 | -49.4 | 35.6 |
| 투자현금흐름 | -16.0 | 7.9 | 5.9 | -47.6 | 15.9 |
| 재무현금흐름 | -2.8 | -6.7 | -4.7 | -4.9 | -0.7 |
| 기말 현금 | 127.1 | 132.1 | 74.7 | 30.0 | 125.8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매출 외형은 하락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상승

4차 산업혁명으로 각광받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이동통신망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2.8% 증가한 62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전방산업인 유·무선 통신산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은 가운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3% 하락한 602.3억 원의 매출을,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고객사의 투자 축소와 지연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바 전년 대비 5.9% 하락한 56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통합운영지원 솔루션이 탑재되는 하드웨어 장비와 메모리 등 소프트웨어의 원재료 조달과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매입 단가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할인을 조정과 고객사의 서버 분리 구매 등 방법을 적절히 이용하여 최근 3개년간 매출원가율은 2018년 74.3%, 2019년 70.7%, 2020년 67.3%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양호한 원가경쟁력 추이를 보였다. 또한, 업종 특성상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판관비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2020년에는 매출 하락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원재료 매입단가 관리 전략으로 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42.7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한편, 매출액 순이익률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같은 추이를 나타낸 가운데, 금융수익과 관계기업소유지분 관련 지분법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과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외 영업외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73.7억 원을 기록하였고,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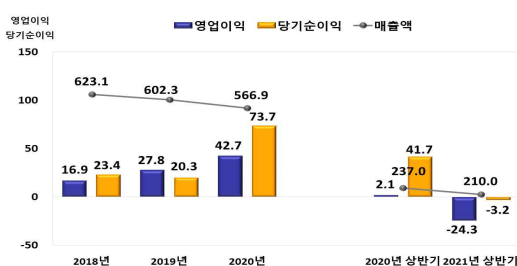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영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

2021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하락한 210.0억 원(전년 총 매출의 약 37.0%)으로 최근 2개년에 이어 매출 하락 기조를 유지하였다. 다만, 동사의 통합운영지원솔루션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 특성상 안정화 단계 이후 유지보수에 대한 대단위 투자가 이루어져 수요처의 투자가 상반기보다는 주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반기 영업실적 반등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편, 2021년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월계약금액(12.6억 원)과 2021년 상반기까지 SKT 등과의 신규계약금액(277.0억 원)을 합산한 현재 수주총액은 약 29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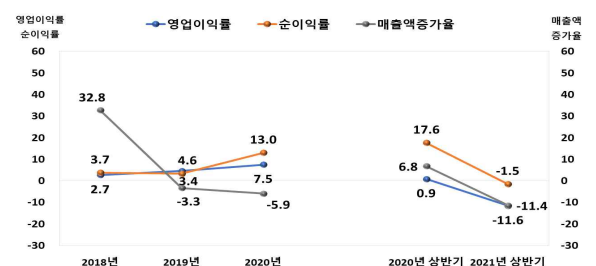
한편, 2021년 상반기 동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가운데, 전반적인 영업비용[매출원가+판관비]이 매출액을 초과하며 24.3억 원(-1,270.2% YoY)의 반기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같은 추이를 나타내었으나, 금융수익과 지분법손익 외 영업외이익 발생금액이 영업손실 일부를 보전하며 반기누적 순손실은 반기누적 영업손실보다 적은 3.2억 원(-107.6% YoY)을 기록하였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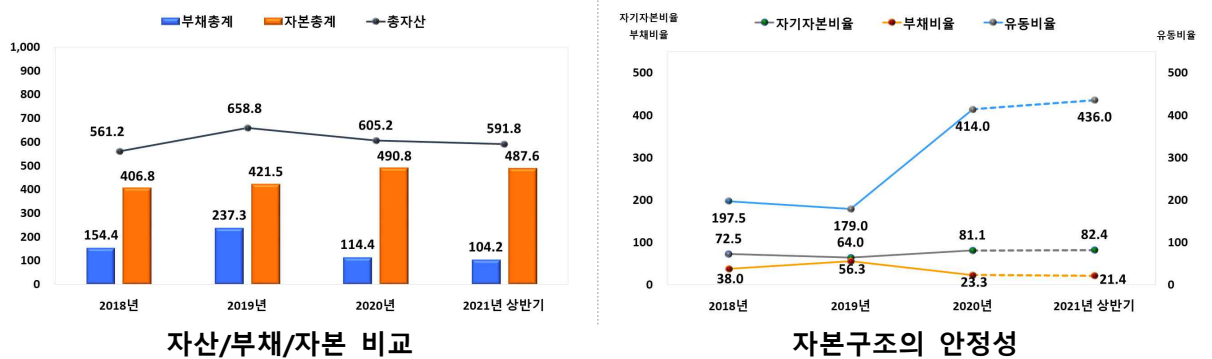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1]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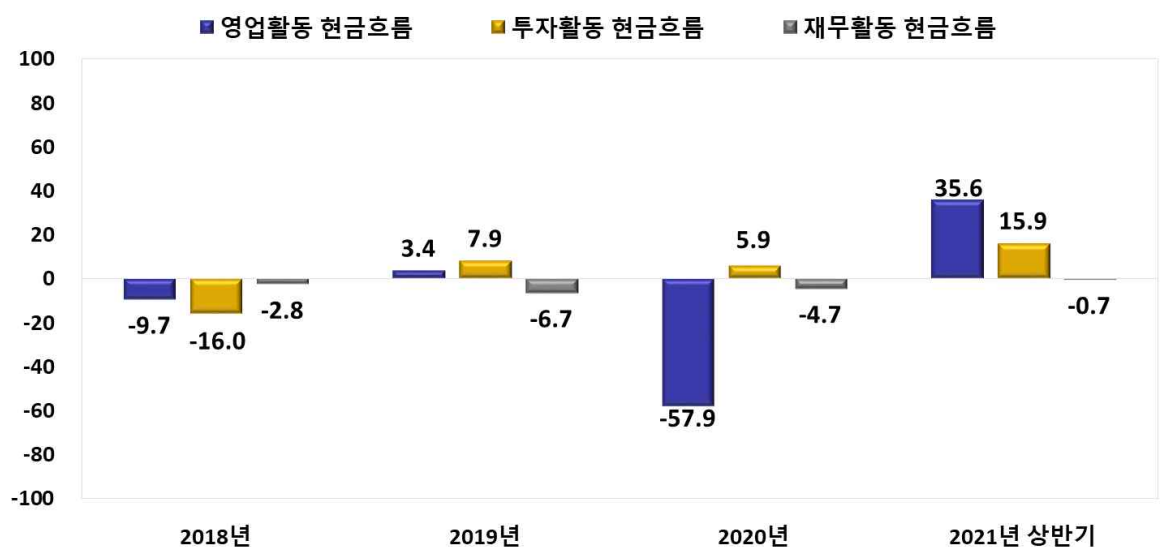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2020년 관계기업 투자주식 매각을 통해 운전자금 충당과 부채 상환

2020년 순이익 시현으로 매출채권의 현금화 기간은 증가한 반면, 매입채무 감소 등 비용의 현금 지급 기간은 짧아지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57.9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 다만, 관계기업인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며 현금 1,190억 원이 유입되었고, 이를 통해 위의 부족 운영자금과 자기주식의 취득 등 재무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충당하였다.

2021년 상반기에는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통해 현금화 기간이 짧아지며(매출채권 2020년 말 1,427억 원 → 2021년 6월 말 75.1억 원) 총 35.6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에 예치한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등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15.9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2021년 6월 말 현금성자산은 1,258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자산 대비 21.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동사의 현금 유동성이 무난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III.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디지털 뉴딜 사업 및 연구영역 확대 등 사업 다각화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

동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고, 국내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체결을 통한 관계강화를 도모하며, 연구협력 활동 참여 등 사업영역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바,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S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디지털 뉴딜 사업 수주

동사는 2020년 12월 정부에서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S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건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해당 사업은 정부업무망 레퍼런스 실증사업과 MEC 기반 공공부문 선도적용사업으로 각각 경기도청과 인천국제공항에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에 공급하는 정부업무망 레퍼런스 실증사업은 업무망,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유선 LAN 환경을 무선접속 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스톱셀 및 단말 솔루션, 네트워크 슬라이싱, 암호화 인증 솔루션 등을 적용해 정부 업무환경을 모바일 기반의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정부와 스마트워크 확산, 비대면 업무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사는 정부업무망 레퍼런스 실증사업을 필두로 향후 5G 핵심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 전용 Private 5G 시장까지 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에 공급할 MEC 기반 공공부문 선도적용사업은 MEC 전용 비즈 플랫폼을 공급해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관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후 고객관리, 정산 및 과금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비즈 플랫폼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 에너지, 환경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

유·무선 통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았으나 온라인 화상회의, OTT 서비스 이용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비대면 사업 분야를 추진 중인 동사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동사는 탈 통신 트렌드와 함께 정체된 통신사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비대면 조직을 강화했으며, 플랫폼은 물론 AR/VR,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사가 보유한 5G 이동통신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으로서 2030년까지 에너지, 환경,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를 포함한 10개 산업 분야에 걸쳐 막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3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엣지-클라우드’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 국책과제인 ‘부하분산과 능동적 적시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엣지 분석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해당 기술은 MEC 기술의 일환으로 5G 초연결 데이터 분석환경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경감과 지역적 초저지연, 실

시간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로 꼽히며, 자율주행, 가상현실을 구현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각광받고 있어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3]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년 11월 05일)